

# 진도군, 물김 위판액 904억원 '전국 1위'

### 총 8만8879톤... 지난해 보다 생산량 31% 상승 지속적인 김 품질 향상 위해 다양한 지원 실시

진도군이 2021년산 물김 생산을 종료한 결과 총 8만8879톤, 904억원 위판액을 기록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6만7,000여톤에 비해 생산량은 31% 상승했으며, 생산금액은 756억원보다 19% 증가해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했다. 진도군의 김 양식 면적은 479여가,

1만4,810ha 면적에 19만2,569책으로 지난해 10월 물김 첫 위판을 시작했으며, 5월 초순 위판을 종료했다. 올해 1월 초순 중국에서 발생한 팬생이모자반이 김 양식장에 대량 유입해 막대한 피해를 입혀 작황 부진으로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어업인들의 꾸준한 어장관

리로 후반기 들어 김 생산량을 회복하고, 물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량과 위판 가격도 크게 증가했다. 진도군은 2021년산 물김 위판이 종료됨에 따라 생산이 종료된 어장 내 김 양식시설물이 조기 철거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고품질의 원조를 생산하고 신 품종 개발을 위해 어장별 해양환경 특성 조사와 김 양식어업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을 체결, 어업인 현장지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김 품

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를 위해 양식어장 재배치 사업과 ▲육상 채도 배양장 ▲김 가공 ▲김 냉동망 저온저장 시설 등을 지원했다"며 "무면허 불법 양식시설과 어업권 정비 작업 등에 수산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 김은 적조가 없는 청정해역에서 생산돼 게르마늄 등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맛과 향이 독특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진도=조상용기자



### 강진군-강진청자로타리클럽 호수공원 치유공간화 업무협약 체결

강진군은 지난 11일 강진로타리를 협회관에서 강진청자로타리클럽(회장 나동열)과 강진 호수공원 군민 치유 공간화를 위한 자원봉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군민이 공원 관리에 참여해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군민 재능기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진청자로타리클럽은 2014년 11월 창립된 봉사단체로 60여 명의 회원이 평소 집수리, 이미용, 가우도 및 갈대축제장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진읍 서성리 호수공원의 산책

로와 수변공원 주변 잡초제거, 물주기 등 녹지관리, 환경정화, 계도활동 등을 매월 2회 실시하게 된다. 군은 협약의 성공적인 추진과 시민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강진호수공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공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가꾸기 위해서는 군민 스스로 소중히 관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이 시민 참여 녹지관리 문화가 확산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강진군과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장흥군, 바다식목일 기념 해조류 바다숲 조성



### 용산면 자라섬 등 4개소 4500㎡

장흥군은 지난 10일 제9회 바다식목일을 기념하여 관내 4개소(용산면 자라섬, 관산면 무녀도, 회진면 해양낚시공원, 소마리도) 4,500㎡의 면적에 갯녹음 예방을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매년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로 바다 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 조성을

기נת하는 법정 기념일이다. 관내 어촌계원 20여 명이 직접 참여하여 친환경 종자줄에 부착된 곱피 종자를 흙벽돌에 걸속 및 바다 속에 투척함으로써 바다 속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다 살리기에 동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바다 사막화의 심각성과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등량만 청정해역을 유지·보존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바다 살리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해남군, 포스트코로나 생활관광 활성화 대응 생활관광 아카데미 개강...7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해남군은 코로나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라 '생활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생활관광은 일정기간 한 여행지에 머물면서 새로운 환경을 충분히 경험해 보고, 지역에서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문화를 체험해보는 관광 트렌드로, 코로나 이후 청정 자연속에서 힐링을 즐기는 개별·소규모 여행 등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5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열리는 아카데미는 관광펜션,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등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생활관광 여행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서비스 경영 전략을 교육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관광상품 개발·SNS 홍보전략, 상호 사업장 방문 후 장단점 모니터링, 자율형 선진지 배움여행,

나만의 사업운영 및 마케팅 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교육이 실시된다.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우수업체 20개소 가량을 선발해 오는 7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활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생활관광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체 역량강화는 물론 체류형 관광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집구류 개선 시범사업도 역점 추진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 이후 관광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실시하게 됐다"며 "해남이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 하고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청년동아리 '청바지' 개강 3개 분야(스크린골프·쿠킹 클래스·등산) 동아리 운영

장흥군은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청춘남녀 만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동아리 '청바지' 사업은 관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윈스톨 통합 서비스(미혼남녀 동아리 활동, 교육 프로그램, 코칭 상담)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결혼관을 재정립하여 결혼전환과 인식개선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청춘남녀 간 취미 활동 공유로 만남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동아리 활동은 젊은 세대들의 선호도가 높은 스크린골프, 쿠킹 클래스, 등산 등을 중심으로 50여 명이 3개 동아리에 참여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꾸준한 인연을 가지면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청춘은 바로 지금  
정중순 장흥군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즐거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을 만들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참된 인연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자연스러운 취미 활동을 통한 만남이 건강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강진군 "적기에 이앙(모내기) 실천 합시다"

강진군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택해 적기 모내기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중점 지도에 나선다. 강진군의 모내기 최적기는 대표 품종인 새청무벼를 포함한 중만생종은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중생종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이모작 조생종은 6월 12일부터 20일까지이다. 모내기를 너무 일찍 하면 온도가 낮아 초기생육이 지연되고, 햇가지가 많아 통풍이 불량하여 병해충 발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고온기 출수로 인해 호흡량 증가로 양분 소모가 많아지고 동할미(금간 쌀)가 늘어나 미질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늦게 모내기를 할 경우, 영양생장기간이 짧아져 이삭 수와 벼 알수가 적어지고 등숙율과 품질이 떨어진다.

최영아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은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적기에 이앙하면 수량 확보와 미질 향상에 유리하다"면서, "이앙 최적기에 모내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묘관리와 적정수확 확보, 분담 초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육묘상자 처리제 살포 등 영농 현장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